

아프리카TV

(067160/Not Rated)

의미있는 one step

- KBS 콘텐츠 확보로 '대중적인 종합 방송 플랫폼'에 한발자국 다가서다
- 트래픽 수준에 걸맞는 광고매출 확보 가능성 레벨업
- 추가 지상파 콘텐츠 확보 및 새로운 시청자층 확보를 위한 후속 작업 기대

Catalysts: KBS 콘텐츠 확보로 '대중적인 종합 방송 플랫폼'에 한발자국 다가서다

아프리카TV는 지난 6월 9일 KBS미디어주식회사와 방송 콘텐츠 계약을 체결하고 KBS1과 KBS2에서 방영 중인 방송 콘텐츠를 자사의 SNS 플랫폼 '아프리카TV'에서 서비스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최근 JTBC, YTN 등 종편 및 케이블 채널 실시간보기 판권 확보에 이어 처음으로 지상파 콘텐츠까지 확보함으로써 1) 개인방송이 아닌 종합 방송 플랫폼 및 2) 좀더 대중적인 방송 플랫폼으로의 의미있는 진일보라는 판단이다.

트래픽 수준에 걸맞는 광고매출 확보 가능성 레벨업

우리는 지난 1Q14 프리뷰에서 동사가 트래픽 수준에 비해 광고매출이 너무 작음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이는 많은 부분 아프리카TV라는 플랫폼이 게임 등 몇몇 특정 시청자군에 국한되어 있어 모바일 광고 플랫폼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거나 대형 광고주를 확보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기 때문임을 밝힌 바 있다. 즉 동사에게는 대중성의 확보라는 과제가 아직 남아 있다.

종편/케이블 채널에 이은 첫번째 지상파 콘텐츠 확보인 이번 이벤트를 통해 1) 대중성 확보 및 2) 개인방송 플랫폼에서 종합 방송 플랫폼으로의 외연 확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것으로 본다. 이는 현재 동사가 보유하고 있는 DUV 300만 수준에 걸맞는 광고매출 규모를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한 이는 다시 연령층 다변화를 통한 트래픽 순증 및 광고매출 수준의 제고라는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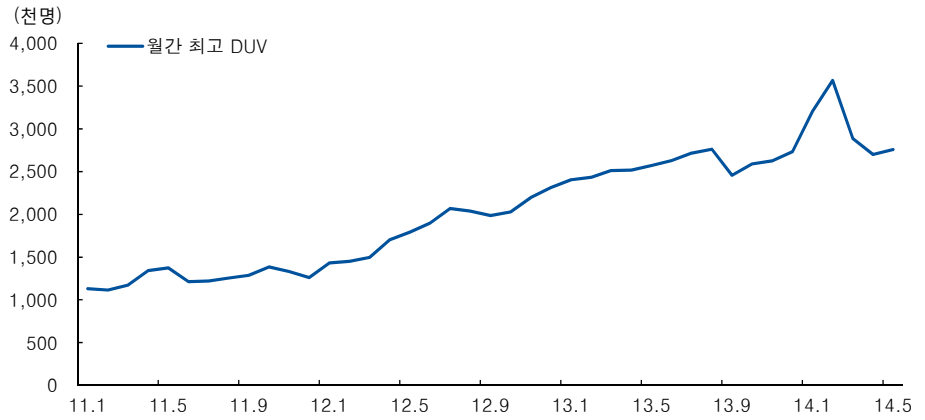
남은 과제는 지상파 콘텐츠 추가 확보 및 UI 변경 / 프로모션 등 후속 작업

동사에게 남은 과제는 SBS MBC 등 지상파 콘텐츠의 추가 확보 및 1) 확보된 콘텐츠들이 새로운 시청자층을 유인하도록 하기 위한 프로모션과 2) 방대하고 다양해진 콘텐츠에 손쉽게 신속히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UI(user interface)로의 변경 등의 후속작업이다. 지상파 콘텐츠 추가 확보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이나 KBS 콘텐츠 확보로 유리한 레퍼런스를 확보한 것으로 판단한다. 후속작업과 관련하여서는 3Q14 중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된다.

결산기 (12월)	12/11	12/12	12/13	12/14F	12/15F	12/16F
매출액 (십억원)	48	49	48	63	78	96
영업이익 (십억원)	4	4	4	10	19	28
영업이익률 (%)	8.3	8.2	8.3	15.9	24.4	29.2
순이익 (십억원)	1	1	0	7	13	21
EPS (원)	87	58	33	700	1,323	2,049
ROE (%)	2.7	1.6	0.9	18.0	25.0	27.7
P/E (배)	90.5	158.1	276.3	33.9	18.0	11.6
P/B (배)	2.4	2.5	2.4	5.4	3.6	2.8

주: K-IFRS 연결 기준(2012년은 K-IFRS 개별 기준), 순이익은 지배주주 귀속 순이익
자료: 아프리카TV,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 아프리카TV 월간 최고 DUV 추이



자료: 아프리카TV,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해당 회사와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서 매매를 권유한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